

# SPORTS '복귀 임박' KIA 김도영, 순위경쟁 판도 바꿀까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KIA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의 복귀가 임박했다. 김도영은 23일 합평-캘린저스필드에서 열린 2025 미디어힐 KBO 퓨처스리그 삼성라이온즈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3번타자 겸 3루수로 출전했다. 부상 후 첫 실전인 이날 2타수 1안타를 기록한 김도영은 수비도 3이닝을 소화하면서 1군 복귀를 위한 성공적인 집결을 마쳤다. 김도영은 24일 합평에서 라이브배팅으로 마지막 훈련을 소화한 뒤 이르면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군으로 풀업될 예정이다.



## 23일 합평-캘린저스필드 2군 경기서 첫 실전 이르면 주말 LG전 콜업... 타선 활성화 기대

올 시즌 시작 전 절대강자로 꼽혔던 KIA는 개막전 경기에서 간판 타자 김도영이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내리막을 걸었다. 내야수 박찬호와 김선빈의 부상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리그 최하위까지 하락했다. 23일 경기 전 기준 11승 12패 승률 0.478으로 리그 6위까지 올라왔지만, 타선은 여전히 부침(팀타율 0.239·9위)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박찬호와 김선빈이 이미 복귀했고, 김도영까지 합류한다면 타선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수 있다. 실제 김도영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부상 복귀 후에도 남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김도영은 2023년 4월 왼쪽 중족골 부상을 당한 뒤 6월 복귀전에서

맹활약했다. 6월 23일 광주 kt위즈전에서 5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를 기록했고, 이튿날에는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만들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린 김도영은 2023시즌 84경기에 출전해 340타수 103안타 7홈런 47타점 25도루 타율 0.303이라는 호성적을 달성했다.

2024시즌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3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결승전에서 주루 플레이 도중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한 김도영은 2024년 2월 중순에 복귀했다. 그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타석도 소화하지 못한 채 시범경기에 투입됐지만, 10경기 28타수 8안타 타율 0.286을 기록했다.

정규리그 시작 후에는 훨훨 날아다니며 KBO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스타석 내추릴 사이클링 히트 등 다양한 대기록을 쏟아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4안타 1홈런 3득점 5득점을 기록하며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다. 부상 재발 방지라는 숙제가 있지만, 팀 간판타자인 김도영이 합류한다면 프로야구 순위싸움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IA는 1강 LG트윈스와의 7.0게임차지만, 2위 한화(5.0게임차)·3위 kt(5.5게임차)·4위 롯데(5.5게임차)와는 불과 2.0~1.5게임차 안이다.

KIA는 이번 주 주중 리그 5위 삼성(6.5게임차)과, 주말 단독 선두 LG와 경기를 치른다. 순위 분수령인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

1군 복귀를 앞둔 김도영이 앞으로 상승세를 그리며 팀의 2연패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IA, SAMG 인기 IP '캐치! 티니핑'과 협업

어센틱 유니폼 등 17종 출시...내달 2일부터 온·오프라인 판매

KIA타이거즈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SAMG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KIA는 먼저 다양한 컬러 버 상품을 선보인다. 어센틱 유니폼은 물론 랜덤 피규어 키링, 직판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컬래버 상품을 출시하며, 올 시즌 동안 온·오프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방침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열리는 한화와의 홈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고척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수단은 협업을 통해 제작된 티니핑 유



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서도 티니핑을 만날 수 있다. 5월 2일부터 한 달간 티니핑 컬러 버 포토존은 물론 에어발룬 등이 설치되며 티니핑 포토카드도 운영한다.

5월 2일부터 치러지는 한화와의 홈경기 3연전 동안 한정판 티니핑 지류 티켓 또한 팔린다.

컬래버 상품 상세 정보는 온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구입은 5월 2일부터 온·오프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가능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스쿼시연맹은 최근 서구 영빈관에서 박태정 광주스쿼시연맹 신임회장, 임효택 부회장 등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 "전문·생활체육 화합...모두가 즐기는 스쿼시 만들 것"

광주스쿼시연맹 제1차 이사회 개최  
박태정 신임회장 등 임원 30명 참석

광주스쿼시연맹은 최근 광주 서구 영빈관에서 '2025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박태정 광주스쿼시연맹 신임회장, 임효택 부회장 등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김서영 위원장·정유진 부위원장 등 스포츠평의회 7명, 집행부 임원 및 감사 2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광주스쿼시 일반현황 보고, 전국규모대회 일정 보고, 2025년 광주생

활체육대회 일정 보고, 종목단체 통합 사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광주스쿼시연맹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연맹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며 조직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스쿼시 현장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태정 회장은 "2025년을 광주 스쿼시 발전 원년의 해로 삼고, 엘리트 선수들의 선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면서 "앞으로 신임 위촉된 이사분들과 함께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쿼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AI페퍼스, 고예림 영입... "팀 수비 중심 기대"

12시즌 활약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하혜진과 재계약...전력 안정화 도모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커피는 AI페퍼스가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영입했다.

AI페퍼스는 23일 "2024-2025 V리그 시즌 종료 후 열린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예림은 2013-2014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 그해 신인왕을 차지했다.

팀 내 주전선수로 자리 잡은 고예림은 2017-2018시즌 개막을 앞두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영입한 FA 박정아(현 AI페퍼스)의 보상 선수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2019년에는 데뷔 후 첫 FA 자격을 얻어 현대건설로 동지를 옮겼다.

12시즌 동안 V리그에서 활약한 그는 풍부한 경험과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는다. 공수 밸런스를 고루 갖춘 자원으로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고예림

고예림은 "현대건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시고 함께하자고 해주신 페퍼커피 측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을 믿고 큰 고민 없이 선택했고, 새로운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소연 감독은 "고예림은 공수의 균형을 갖춘 선수로서, 화려한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팀의 수비에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하혜진

기대한다"며 "코트 내 유기적인 움직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내부 FA였던 미들블로커 하혜진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FA 시장을 통한 전력 구성을 마무리했다. 고예림 영입과 하혜진 잔류를 기반으로 전력을 재 정비한 AI페퍼스는 아시아쿼터 스테파니 외리외와 다음달 9일 예정된 외국인 선수 트레이아웃을 통해 최적의 시즌 전력 구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박의성, 정윤성 잡고 광주오픈 16강행... 권순우는 석패

예선 포함 3연승 질주... "불안한 서브 극복해"

국내 남자테니스 강호 박의성(24·대구시청)이 예선 2승을 포함해 3연승을 올리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캘린저 테니스대회'(총상금 10만달러) 단식 16강에 올랐다.

박의성은 23일 광주시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3일째 단식 1라운드(32강)에서 정윤성(27·상무)에 2-1(4-6·6-3·6-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박의성은 1세트 게임스코어 4-4로 팽팽히 맞서다 정윤성의 폭발적인 서브와 스트로크에 밀려 두 게임을 내리 내주며 무너졌다. 그러나 2세트부터 힘을 내 고비마다 터지는 서브 에이스와 안정적 리턴샷을 바탕으로 정윤성을 몰아붙여 값진 역전승을 일궈냈다.

박의성은 2023년부터 정윤성과 3차례 맞붙어 이번까지 2승1패를 기록했다. 그는 경기 뒤 공식 인터뷰에서 "(정)윤성 형과는 어릴 적부터 같이 운동해 잘 안다. 형의 스트로크가 워낙 좋아 힘들었다"면서도 "그러나 베이스라인 플레이를 안정

적으로 펼쳐 이길 수 있었다. 첫 서브 정확성이 떨어져 불안했는데,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안성시청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군에 입대한 육군일병 정윤성은 선전했지만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듯 2세트 후반부터 에러를 남발하며 패배하고 말았다.

이러진 단식 1라운드에서 세계 507위 권순우(27·상무)는 최고 랭킹 63위까지 올랐던 제이스 쿨러(31·호주)에게 0-2(3-6·4-6)으로 석패해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쿨러는 현재 랭킹이 307위이다.

지난주 부산오픈 캘린저 8강전에서 정현을 2-0(6-2, 6-4)으로 눌렀던 쿨러는 이날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스트로크 플레이를 앞세워 낙승했다.

정현과 함께 상무팀에서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육군일병 권순우는 정윤성과 함께 이번 대회와 일드카드를 받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국내 남자테니스 강호 박의성이 예선 2승을 포함해 3연승을 올리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캘린저 테니스대회' 단식 16강에 올랐다.